

시인·승려·교사의 삶 “승고하여라”

2월 4일 김달진 탄생 1백주년...5월에 심포지엄 9월 15~16일, 진해에서 ‘김달진문학제’ 예정

불교적 철학사상이 녹아있는 시세계를 남긴 시인 월하(月下) 김달진(1907~1989)은 1907년 경남 진해에서 태어났다. 만일 그가 살아 있다면 올해 그의 생일인 2월 4일 1백세가 된다. 이에 김달진 선생의 생애와 불교적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행사가 전국에서 다채롭게 열린다.

2001년부터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를 열어온 대신문화재단과 민족문학작가회의는 김달진 선생과 더불어 탄생 100주년을 맞는 소설가 이효석(1907~1942), 시인 신석정(1907~1974) 등 10여명의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심포지엄’을 5월 11일 서울 신문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갖는다.

이날 행사에서는 탄생 1백주년을 맞는 각 시인들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문학가와 국문학자들이 발제자로 나와 시인들의 생애와 문학세계를 조명하고 그들이 작품속에서 남긴 문학철학을 활발하게 토론한다.

또한 올해로 12화제를 맞은 ‘김달진문학제’도 9월 15~16일 양일간 경남 진해 김달진 문학관과 시내 일원에서 열린다.

탄생 1백주년을 맞은 시인들중 시인이자 승려였으며, 한학의 대가이며 교사로 일생을 살아온 김달진에게 불자들의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계광보통학교에서 교편생활을 하던 1929년 순수 문예지 ‘문예공론’지에 무예 양주동 선생의 추천으로 시, ‘잡영수곡’이 실리면서 등단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계광보통학교가 폐교되고, 민족 현실의 절망과 좌절의 끝자락에서 어느 날 밤 깃어진 벽지 사이, 초벌 신문지에 뚜렷이 보이는 <불(佛)자를 발견한 다. 빛으로 여는 세상이 그의 마음에 섬광처럼 빛났다. 그리고 그는 입산 수도 했다.

김달진은 ‘산거닐기’에 자신의 입산 동기를 밝혔다.

“나는 원래 산을 좋아했다. 이것이 입산 동기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으나, 스님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짧은 구렁이 같이 훑쓸스러운 내 자신의 집착성에 대한 반발이 아니었다 싶다. 장삼을 입고 합장하였을 때, 내심의 정제에서 느껴지는 화평한 심정 - 이것은 높고 아름다운 덕인 양, 나를 활출한 경지로 이끄는 듯하였다.”

김달진은 1934년 봄, 금강산 유점사에서 김운아 주지스님을 은사로 하여 득도한다. 이듬해, 백용성 스님을 모시고 함양 백운산의 ‘화과원(華果院)’에 들어가 김달진은 반선반농의 수행생활을 하면서 용성 스님이 번역한 <화엄경>의 윤통본에 마음을 다한다.

30세 때 중앙불교전문학교에 입학, 문단생활을 하면서 1940년 9월 시집 ‘청사’를 낸다. 유점사로 돌아와 강론에 전념하다가 일본경찰을 눈속여 체박은 사건으로 유점사를 탈출, 울정에 잠시 머물러 있기도 했다.

1945년 광복 후 청년문학가협회 일을 하다가 서울생활을 청산하고 대구, 진해로 내려온다. 1949년 6년제 진해중학교에 있으면서 교지 ‘달’ 창간호 권두시를 쓰기도 했다.

장원남중학교 교장 퇴임 후 고려대장경 번역 사업에 몰두하여 20여년간 200자 원고지 15만장 정도의 불경을 번역했다. 1983년 그는 불교정신문화원으로부터 ‘한국의 고승석덕’으로 추대된다.

1989년 6월 7일, 시인은 향년 82세를 일기로 세상살이의 한 갈피를 접었다. 작고 직후 간행된 <한국한사> 세 권이 민음사에서 나왔다. 세상을 달리 했지만, 그의 책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계속 발간되어 나왔다.

1990년부터 김달진 선생의 문학 정신과 뜻을 기려 ‘제1회 김달진문학상’이 제정되어 서정시인과 문학평론가들이 오늘날 문학의 순결함과 위대함을 지켜나가고 있다. 1991년 은관문화훈장이 추서됐다.

시인이기 이전에 금강산 유점사, 함양 백운산 등에 입산 수도한 스님이었던 김달진 선생은 60년대 이후 <한국고승시문집>을 비롯해 불경 번역 등 서포교에 열정을 바쳤다. 또한 <법구경><붓다자리다><보조국사전서>, 원효의 <금강삼매경론>등 다수의 경전들을 번역해 많은 업적을 남긴 불교계 최고의 시인중 하나로 평가된다.

(사)경남시사랑문화인협회 회장인 최동호 시인(고려대 교수)은 “그 어떤 것도 꾸미지 않는 무위자연적인 삶의 태도, 자유자재한 세계의 인식이라는 점에서 김달진 시가 지닌 맑고 깨끗한 불교적인 철학 세계는 탄생 1백주년을 맞아 더욱 새롭게 가치를 발휘할 것이다”고 평했다.

이성모 김달진문학관장은 “김달진 문학제는 무용공연, 시낭송페스티벌, 문학심포지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지난해부터 규모가 커져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지역 문화제로 자리잡았다”며 “올해는 탄생 1백주년을 기념해 지역민들은 물론 전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경남시사랑문화인협회의 화와 기획하고 있는 중”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역경사업에 전념하던 김달진 시인의 40대 모습.

20여년간 불경 15만장 번역 ‘한국의 고승석덕’으로 추대



1987년 <현대한국선사> 발간 무렵의 김달진 시인.

20여 명의 제자들과 호남 예술 진수 선배

이매방 선생 팔순 기념공연

한국 전통무용의 대가 이매방 선생(80·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와 제97호 살풀이춤 보유자)의 팔순 기념 공연이 마련된다. 1월 25일 저녁 7시 30분 서울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이매방 춤보존회(회장 임이조)가 주최하는 ‘무선(舞仙)·님께 드리는 헌무(獻舞)’가 바로 그것. 이번 공연은 한국 전통 무용사



격조있는 정중동의 움직임을 선사하는 이매방의 살풀이춤.

25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서 살풀이춤 등 9개 레퍼토리

에 한 획을 그은 이매방 선생의 춤 인생을 집약한 무대에서 격조 있고 신명나는 한국춤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에서는 이매방 선생이 보유한 중요무형문화재 27호 승무와 97호 살풀이춤을 비롯해 직접 창작한 검무, 기원무, 초립동 등 9개 레퍼토리가 2시간에 걸쳐 펼쳐진다.

출연자들도 이뿐만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질 명인들이 총출동한다. 임이조 이매방 춤보존회 회장을 비롯해 최창덕 이매방 춤 전수관장, 전수교육 조교 김명자 김경녀 김묘선을 비롯해 오은명 황순인

박소림 김효분 등 제자 20여 명이 총출연해 호남 예술의 진수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서 선보일 승무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춤이다. 장관을 이루는 북기락, 세찬 장삼놀음, 빼어난 발디딤새의 춤으로 우리나라 민속춤의 정수라 할 만큼 품위와 격조가 높다. 승무와 더불어 이매방 춤의 대명사인 살풀이춤은 한과 신명을 동시에 지닌 신비한 느낌을 주는 춤으로, 정적미의 단아한 멋과 정과 한이 서린 비장미를 함께 갖추고 있다. (02)704-6420,

김주일 기자

지장보살 공덕 음성공양 수원포교당 창작 국악교성곡 연주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의미 국악교성곡으로 되새기세요.’

‘부처님 되신 날’인 성도절을 맞아 부처님의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수원포교당 주지스님 취임 2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 ‘불발에 피는 꽃, 찬! 지장보살!’이 1월 25일 오후 7시 수원포교당 불교문화원 3·4층 만불보전에서 봉행된다.

이날 공연에서는 민족음악관현악단 오느름과 수원포교당 합창단, 솔리스트로는 국립창극단의 프리마돈나 소리꾼 박애리씨를 비롯해 이탈리아에서 활동 중인 바리톤 유홍석씨가 출연해 창작 국악교성곡 ‘불발에 피는 꽃’을 연주한다.

‘불발에 피는 꽃’은 <지장보살본원경> 전체를 그대로 교성곡으로 꾸미며, 장황한 지문이나 여러 번 반복되는 내용 그리고 줄거리 열거한 명칭같은 것은 간략하게 요점만을 간추려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일반 대중들도 이해하기 쉽게 지었다.

수원포교당 합창단 지휘자 김희경씨가 작곡한

‘불발에 피는 꽃’에서는 지장보살이 전생애 죄를 짓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제하는 과정과 지옥 중생을 남김없이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자비심을 내는 모습이 드라마틱하게 전개된다. 이 곡은 연주시간만도 두시간이 넘는 대곡으로 이날 음악회에서는 장엄한 분위기가 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석 무료다. (031)245-9670 김주일 기자

보이차 전문점

진년보이·진년오롱·천관말·오롱차
대홍포·화차·인삼오롱·외40여가지의 차

瑞榮香洱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전선(케이블) - 천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 이제는 법당연등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천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종등

팔각봉축점등

공단등

주름등(만월봉축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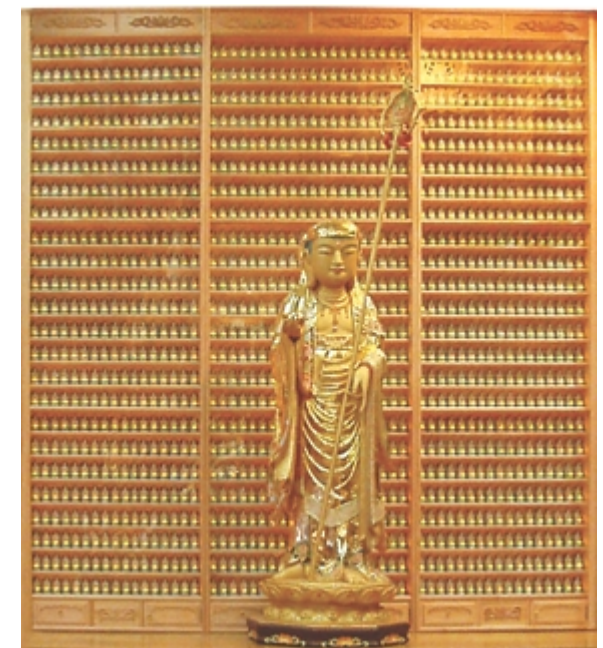
사찰명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전화 신청 바랍니다

공고: 천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천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신동 132-1 / 전화: 031)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법당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아름다운 등

천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인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생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